

말뿐인 고운 말 쓰기 운동

— 하자고는 하는데 걸 따로 가고 속 따로 간다 —

배 우 리
(한국 땅이름학회 회장)

1. 된소리가 늘고 있다

우리가 우리말을 쓰고 우리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가?

겨레를 한 덩어리로 묶어 주고, 하나의 길로 가게 해 주는 말과 글. 이 지구 상에는 수천의 종족이 있고 수백의 나라가 있지만, 우리 겨레처럼 한 말을 쓰고 한 글을 쓰는 민족이 얼마나 되는가. 그 말과 글 때문에 우리가 ‘한 겨레’라는 민족 의식 아래 서로가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연대 의식 속에서 이 땅을 함께 지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본다면 말과 글은 더 없이 소중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나, 말과 글이 이처럼 소중한데 더 없이 귀한 것임을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말과 글을 곱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질 못하고 있다.

물론, 매끄럽지 못한 사회 안에 살아 가다 보니 말이 거칠어져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뜻대로 안 되는 세상에 불만만 쌓이다 보니 거친 말이 마구 튀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날마다 터져 나오는 뉴스 속엔 어느 미성년자가 어떤 범행을 했느니, 어느 젊은이가 마약 중독에 걸렸느니 하면서, 밝은 소식보다는 어두운 소식들이 꺾전을 울리는 세상이다 보니 자연히 거친 소리, 거친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말의 된소리되기(경음화)는 거친 말 중의 대표적인 보기가 된다.

* 사이즈는 작지만 성능은 쎄다(1995. 5. 24. 모 회사 TV 광고).

* 눈썹이 찢구...(1995. 5. 24. MTV 사랑의 스튜디오)

“최고만 녀석이 쏘이 쎄서 쇠주를 잘 들이켜……”

“조끔씩 졸여 볼까?”

“안 땀았어? 그 쎄끼, 팍 쪽여 나.”

‘사랑’을 ‘싸랑’이라고 하는가 하면 ‘닭아’를 ‘뽕아’라고 하고 있다. 방송에서의 오락 프로나 청소년 프로들도 그런 것을 부추기고 있다.

2. 사전 따로 말 따로

방송에서는 사전에도 없는 말들을 마구 뱉어내고 있는데, 그 정도는 이제 단순히 ‘격정’의 도를 넘는다.

꿀 때려-열 받아-찍 찼어

숫다리-롱다리

엑스 세대-또라이-학빼리-야리꾸리

진행자나 출연자도 아무 말이나 마구 해대고, 또 국적 불명의 외래어나 은어, 비속어 등을 함부로 쓴다. 이렇게 되면 모든 언어 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할 국어 사전조차 별로 쓸모가 없는 장식품이 돼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문제는 국어 사전이 지금의 말(통용어)대로 따라가 주던지, 말(통용어)이 올림말(사전 등재어)대로 철저히 가 쥐야 할 텐데, 말은 이미 사전이나 규칙에 앞서 저만큼 판 길을 가고 있는 느낌이다.

방송 언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방송에서 누가 이상한 말 한 마디만 하면 그 말은 금방 학교나 직장 등에 퍼져 버린다. 방송 중에서도 특히 코미디 등의 오락 프로가 저속한 은어를 남발하면서 그러한 흐름을 주도한다.

방송 위원회가 몇 해 전에 은어 사용 실태 조사에서 대표적으로 지적한 몇 예를 보자.

“찍 찼어.”

“... 피박이네.”

“못 먹어도 고네.”

“정말 골 때리네.”

“죽여 준다. 죽여 줘.”

“... 떨떨하다구요.”

“김일성이가 또라이인데, 또라이가 보턴만 누르면……”

“영계 술집... 영계 사냥꾼…… 영계와 포주의 협의 기구가 생긴다면……”

“네 사진 보고 뽕 갔다.”

“학삐리 깔치가 불을 리가 있냐?”

“야마가 돌아요.”

“가리지날 매리지날 또라지날 조포카 돌돌카 제안카 열카……”

은어는 그 뜻 그대로 ‘숨은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은어가 일시적으로 씌었다가 사라져야 하는데, 계속 남아 떠돌고 있어 이젠 그것이 표준말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이다.

3. 한자말에 짓밟히는 토박이말

토박이말이 한자말에 눌러 죽어 가고 있는 것도 걱정이다. 한자말은 우리말을 지금도 계속 마구 잡아먹어 나가고 있다. 그런데다가 요즘은 서구어까지 마구 들어와 합세를 하고, 이 나라 언어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 ‘집’이 너무 낡아, 혈어 버리고 좋은 ‘주택’ 하나 지었지.”

이렇게 ‘주택’이 ‘집’을 잡아먹더니, 이젠 ‘하우스’까지 들어와 ‘집’을 죽이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런 ‘주택’이나 ‘하우스’에는 ‘부엌’과 ‘뜰’이 있다고는 하지 않는다. ‘주방’과 ‘정원’이 있다고 한다. ‘집’이 죽으니깐 ‘부엌’과 ‘뜰’이 함께 죽어 가고 있다.

여러 해 전의 일이다.

강영숙 아나운서(현재는 예지원 원장)가 문화방송에 있을 때인데, 라디오 주부 프로에서 대담자와 화분 홀같이 얘기를 하면서 ‘닭똥’이란 말을 몇 번 썼다고 한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한 청취자로부터 호된 항의를 받았다. 왜 ‘계분(鷄糞)’이란 말을 안 쓰고 그런 천한 말을 썼느냐고.

우리는 꿀이 아프면 ‘꿀’병원이 아닌 ‘뇌’병원에 가야 한다고 한다. 콩팥이 고장 나 병원에 가면 그 콩팥은 ‘신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피’를 검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피’가 아닌 ‘혈액’ 검사를 받고, 염통이 아프다면 ‘심장병’을 의심 받는다. 동물에게는 ‘꿀’이 있지만, 사람에겐 ‘뇌’가 있다고 생각하는 ‘꿀빈’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돼지 몸 속에는 분명히 ‘가로막’이 있는데 사람 몸에는 그것 대신 ‘횡경막’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가로막의 살은 ‘가로마기살’로 되었다가 줄어서 ‘갈매기살’이라는 기형아를 만들어 놓았다. ‘가로막’은 죽고 그것에서 나온 기형아가 살았다.

옛 자연 교과서 인체 항목에는 ‘큰꿀-작은꿀-등꿀-숨꿀’ 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뇌-소뇌-연수-척수’ 등의 말이 자리잡고 있다. 토박이말이 쫓겨나고 한자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밥줄’이 ‘식도’로, ‘샘창자’가 ‘십이지장’으로, ‘쓸개주머니’가 ‘담낭’으로, ‘허파’가 ‘폐’로, ‘실땃줄’이 ‘모세혈관’으로 바뀐지도 이미 오래다.

‘달거리’가 ‘월경’이란 말 때문에 죽어 버리더니, 이젠 ‘멘스’가 그 자리를 차지해 들어갔다. ‘코막힘’이란 우리말도 ‘비색’이란 말이 대신하고 있다.

식물에 관한 이름이나 바위 이름들도 이젠 교과서에서조차 모조리 한자식 이름으로 바뀌어 버렸다.

‘늑달만들기’가 ‘광합성’으로, ‘잎과랑이’가 ‘엽록소’로 변해 버렸다. ‘썩돌-변썩돌-횃돌’같은 이름들도 ‘화강암-편마암-석회석’ 등으로 옮겨 갔다.

‘세모-네모’가 ‘삼각형-사각형’이 돼 버리더니, ‘나란히꿀’은 ‘평행사변형’이란 말로, ‘맞모금-맞줄임’ 등의 말도 ‘대각선-약분’ 등의 말로 둔갑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우리가 잘 키워 왔던 이름들이 한자말들에 치어 죽어 나갔다. 한자말은 우리말을 지금도 계속 마구 잡아먹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일을 부추기는 것은 언론이다. 쉽게 쓸 수 있는 말도 어렵게 쓰고 있는 요즈음의 신문들을 보면 정말 역겨울 정도이다.

- * ‘…… 채권 시장 호조의 영향은 여타 시장으로도 파급돼…… 전주 중 소폭 하락했다.’ <조선일보 1995. 5. 29. 경제면>
- * ‘3만여 관중이 운집한 잠실벌에서…… 대타 작전이 적중…… 대승했다.’ <스포츠 서울 1995. 5. 29. 체육면>
- *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소득 수준 향상으로…… 에 대한 취업을 기피

함에 따라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국정여론 1995. 5. 22>

위의 어려운 말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써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말이다. 그리고, 독자에게는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 '.....채권시장 사정이 나아짐에 따라 다른 시장도 그에 힘입어..... 앞 주 일에는 조금 내렸다.'
- * '3만여 구경꾼이 지켜 보는 잠실벌에서..... 바뀌치기 작전이 잘 풀려(맞아 떨어져)..... 크게 이겼다.'
- * '인구가 덜 늘어나고 소득도 좋아져..... 에 대한 일자리를 꺼려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한자말 중심의 기사는 신문의 어느 면을 보아도 나타난다.

'모두 중단' 이라고 하면 될 것을 '전면 중단' 이라 하고 있고, '사리-조금' 이라 하면 될 것을 '만조-간조'라 하고 있다. '일출-일몰'이나 '파고' 등의 말도 '해돋이-해지기'나 '물결높이' 등의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말을 잘 몰라서 그렇지 않은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언론 기관에서는 아마 같은 말이라도 어려운 말을 써야 무게가 있는 기사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 모양이다.

4. 서구어까지 우리말을 죽여 나가

요즘은 서구어까지 마구 들어와 합세를 하고, 이 나라 언어의 주인 노릇을 하려 하고 있다. 외래어까지는 좋은데, 외국어까지 아무 부끄러움 없이 버젓이 쓰고 있는 매체나 업체가 많아졌다. 특히 이러한 흐름은 월간지(그 중에도 여성지)들이 주도하고 있다.

- * '삼성 패밀리 갈등 뒤의 여성 파워' <여성동아 '95년 6월호>
- * '아이템 미리 짜 주는 패션 다이어리' <주부생활 '95년 6월호>
- * '뷰티 노하우 북 파트2.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우먼센스 '95년 6월호>
- * '앵커 신은경 프라이머시 인터뷰' <뽕 '95년 6월호>
- * '쇼트헤어의 고민 큐(Q) 앤드 에이(A)' <레이디 경향 '95년 6월호>

- * '프레시 감각- 핫 아이템 총출동' <리빙센스 '95년 6월호>
- * '최고 비어 하우스 완전 가이드' <서울아이 '95년 6월호>

신문의 광고면을 봐도 외래-외국어들이 크게 판치고 있다.

- * '섬머 코디네이션 패션쇼핑 찬스' <뉴코아 백화점 광고 '95. 5. 28>
- * '환타지아 타워..... 유려피안 스타일의 고품격 디자인' <대우건설 신문 광고 '95. 5. 28>
- * '그랜드 오픈..... 잠실점 대탄생' <세진 컴퓨터 광고 '95. 5. 28>
- * '패션 코디네이터..... 액세서리 숭' <리빙센스 광고 '95. 5. 28>
- * '프레시 감각 물씬..... 섬머 핫 아이템 총 출동' <리빙센스 광고 '95. 5. 28>

각 방송국의 프로 이름들도 외래어 외국어 일색이다. 그 중에는 외국 프로인지 우리 나라 프로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것들이 많다. 그 일부를 보자.

- * 모닝 와이드<SBS TV>
- * 세계로 가는 퀴즈<KBS 2TV>
- * (누구의) 뮤직쇼<KBS 2FM>
- * FM 골든 디스크<MBC FM>
- * 가요 리서치<SBS FM>
- * CBS 뉴스 레이더<CBS>
- * KBS 빅쇼 <KBS 1TV>
- * 생방송 게임 천국 <KBS 2TV>
- * MBC 뉴스 데스크<MBC TV>
- * 헤드라인 뉴스<SBS TV>
- * 리스닝 스페셜<교육방송>
- * (누구의) 월드쇼<HBS CATV 19>
- * HBS 코미디라인<HBS CATV 19>
- * MBS 스톡보드 <매일경제 CATV 20>
- * 투투 비디오피아<대우 시네마 네트워크 CATV 23>
- * 월드 24<연합 TV뉴스 CATV 24>

- * 위클리 큐(Q) 앤드 에이(A)〈다솜방송 CATV 19〉
- * 뮤직 플러스(M.net CATV 27)
- * 센츄리 클리닉〈센츄리 TV CATV 29〉
- * 워킹 우먼〈동아 CATV 19〉
- * 패션 파일〈GTV CATV 35〉
- * 쇼! 뮤직 탱크〈KMTV CATV 43〉
- * 마이터치 하이터치〈마이TV CATV 44〉

아기 용품점에 가 보면 '베이비'란 말이 들어간 상품들이 널려 있고, 어른 옷가게를 가 봐도 온통 외래-외국어 이름을 단 옷들이 활개를 친다. 우리말 이름의 옷은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보노라면 만약 외래어나 외국어가 없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무척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러한 외래어(또는 외국어)의 차입과 남용 현상은 우리가 필요한 말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무조건 외국의 것을 빌려 쓰려는 안이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귀를 자극하는 낱말들도 요즘에 와서 부쩍 많아졌다.

- * 돌풍 서비스
- * 초가적 파괴
- * 대탄생-대출발-대공개
- * 파격 세일

이상한 말이나 어법에 맞지 않는 말들이 퍼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 * 탱크주의-대우('95. 대우 전자 제품 광고)
- * 좋은 승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스포츠 서울 기사 '95. 5. 28)
- * 지독한 매력 3가지(모 회사 책 광고)
- * 자기야,좀 해 봐. (MBC TV '95. 5. 28 사랑의 스튜디오)
- * 오픈했다. (")
- * 가사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KBS 1R 주부시간 '95. 5. 29)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실한 '우리'이다.

그 중에서도 말은 한 나라의 겨레를 한 울타리 안에 묶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우리가 과거 35년 동안 일제의 지배 아래 있었어도 우리 것을 지키려는 꾸준한 선각자의 노력으로 우리의 말이나 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만큼 한아비들이 물려준 좋은 보배를 가졌다.

요즘 '세계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을 남의 나라 말과 글을 열심히 배우고, 그들의 의상-머리 모양-노래나 풍습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세계화'는 우리가 세계를 닮아 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철저히 지키며, 우리 속에 '세계'를 끌어들이자는 데 더욱 큰 뜻을 두어야 한다.